

전통가옥에 있어서 道思想의 導入을 통한 空間研究

A study of Dimension in Korea traditional House as the Adaptation of thoughts of Truth(道)

양우창*/Yang, Woo-Cha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orrelation between Truth(道) and dimension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architectural point of value in the aspect of correlation between modern western thoughts and the thoughts of Truth and also through the reading of what kind of composite trend of the Truth can be seen in a Korea traditional house.

This study takes the following procedure with reference books and traditional house that we have.

1) Making foundation for this study by finding out the fundamental meaning of the thoughts of Truth through the comparing and analyzing between modern western

thoughts and the thoughts of Truth.

2) Reviewing the understanding of dimension in the thoughts of Truth.

3) Translation of the organic correl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composition, placement and characteristics of dimension in a real present traditional Korea house.

4) Finding out the meaning of each dimension through the adaptation of the fundamental rules of nature of Jang(藏:store), Sang(生:life), Jang(長:long), Su(收:obtain) to the dimension composite of a traditional house and concluding that the cyclical process in the oriental thoughts could be made.

키워드 : 전통가옥, 도사상도입, 장생장수프로세스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서양의 정신적 흐름은 기존 패러다임에서 아인슈타인 이후 뉴패러다임으로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며 건축에서의 수용도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해체주의 건축쪽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서양의 정신적 흐름에 대해 자의적 수용이나 이해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한 우리로서는 전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전통 속의 정신을 수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라 하겠다.

전통이라는 개념에 있어 서구의 그것과 우리의 것이 다르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과거로부터 집단 속에 전해져 내려온 것을 다시 살펴 본다는 의미에서 전통이라는 어휘를 사용하게 된 서구에 비해 우리는 서구로부터 밀려오는 사상이나 기술에 대항하기 위해 과거의 관습이나 전통이라는 다소 복고적이고 국수적이며 배타주의의 입장으로 이해하는데 기인한 것 같다. 실내 건축 영역에서 좀더 전통성이 라는 측면을 부각시키고 그것이 한국성과 연관을 갖게 되기 위해서는 통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공시적인 측면을 포함한 어휘로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정희원, 중부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전임강사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자는 현대 서양사상과 전통사상의 한 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 도사상과의 상관성을 통해 건축적 가치관을 살펴보고 우리의 전통가옥 속에 도사상이 어떠한 구성적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를 짚어 봄으로써 도와 공간과의 상관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조선 중기에 해당하는 1747년, 현 주인인 박황씨의 5대 조, 박광석씨에 의해 건축된 묘동의 전통가옥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남성적 공간인 사랑채와 사랑마당, 서고, 하업정과 연당, 여성적 공간인 한채와 안마당, 갖방, 우물과 꽃간을 필요에 따라 개별적인 동시에 연속적인 관점에서 취급하였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서양사상과 도사상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도사상의 근본적 의미를 돌출해 내어 전통가옥에 있어서 공간에 도입된 도사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틀을 만들고,

둘째, 도사상에서는 공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셋째, 장(藏) 생(生) 장(長) 수(收)라는 자연의 기본 이치와 전통가옥에 있어서의 공간이 어떠한 연관성을 갖으며 동시에 개별적 공간 해석 방법론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2. 현대서양사상과 도사상과의 비교 고찰

2-1. 도사상에 대한 일반적 고찰

도란 형체있고 소리있는 모든 것이 그곳에서 생겨나고 또 그곳으로 돌아가는 이 세계의 근원에 있는 궁극적인 실재이다. 인간을 포함한 만물은 생멸변화(生滅變化)를 되풀이하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도는 만물의 생멸과 변화를 초월하여 유구하며 무관하다. 도의 실체를 알기 위해 노자는 형체없는 형체, 소리없는 소리(窈)이며 어둠(冥)인 것, 황(恍)이며 홀(惚)인 것, 초월적으로 하나인 것, 영원히 차는 일이 없는 것, 무한하며 피로를 모르는 것, 만물을 낳은 이세계의 어머니, 그대로인 것, 인간이 하는것과 같은 일을 무엇이나 하지않고 그러면서도 인간으로서 미치지 못할 위대한 일을 절대로 해치우는 것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도는 천지만물을 낳았으면서도 자기를 창조자로서 의식하는 일이 없고, 인간이나 새, 짐승 또는 초목, 벌레이든간에 차별하는 일이 없다. 부자나 가난뱅이 또한 착한사람, 악한사람을 한가지로 받아들이기에 도 앞에서는 평등하다. 또한 도는 천지만물을 포용하여 어떠한 것보다 대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결코 다투지 않는다.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않고 스스로의 공을 자랑하지도 않으며 다만 호젓하고 조용하여 느긋한 것이 오직 생명변화, 영허성쇠속에 절로 이룩되는 조화의 이법(理法)을 제시하고 남는 것을 덜어서 모자라는 것을 채운다. 인간의 언어에 의한 가치부여나 작위에 의한 질서규정을 모두 상대적인 것으로 보고 고정관념에 얽매이는 일도 없이 자유롭게 사물을 구하고 또한 사람을 구한다. 노자는 도를 따라 실행하는 성인의 자세를 무위(無爲)라고 불렀으며 상덕(上德=常德)이라고도 하였다. 무위란 악덕을 버리고 작위를 버린 자세라 도의 본래적인 무작위(無作爲)와 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덕의 경우에는 유교의 그것과 구별하여 상덕이라하였다. 노자의 궁극적인 관심은 요컨대 상도(常道)와 상덕(常德), 즉 무위자연의 길과 무위 자연의 덕을 밝히는 데 있다. 또한 인간 저마다 길을 얻는것(깨우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였고 길을 깨우치는 절대적인 지혜), 즉 앎을 갖는 것이 제일의 관심사였다. 인간이 참된 앎, 즉 도의 본래적인 하나의 눈뜨고 그 미묘한 것을 보는 영지에 되돌아가지 않고 그 명백한 것(현상세계)을 보는 방자한 차별지(差別知)에 빠졌있는 한 인간의 눈에 비치는 세상의 모습은 다만 끝없이 분극되고 절단되어 있는 차별과 대립의 세계에 불과하다고 본다. 도(道), 무위(無爲), 자연(自然)과 같은 개념은 불교교리 전개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형체 없고 소리없는 도의 진리는 도교의 진리임과 동시에 불교에서의 도의 진리이기도 하다.

2-2. 현대서양사상과 도사상의 비교 고찰

2-2-1. 상대성 이론과 도사상

근대 뉴우튼의 패러다임은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Special theory of relativity)과 일반 상대성 이론(General theory

1)노자, 道德經, 제2장, 홍신문화사, 1997, p.34

전 후라는 시간상의 시점은 흐르는 시간 속에서 서로 관계되어지는 것으로 시 공의 연속체 속에서 파악되는 것이다.

of relativity)을 통해 붕괴되기 시작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등속도 상태의 운동을 다룬 것으로 움직인다는 것과 정지해 있다는 것 혹은 빠르다거나 느다는 것이 상대적 기준틀에 의한 것이고 공간과 시간이 한가지 현상인 동시에 에너지와 질량을 같은 사물의 다른 형태라는 등의 사실을 밝혀 주었다. 이것은 곧 실재가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이며 우리는 4차원의 시 공 연속체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물질 한 조각이 시 공 연속체의 한 곡률이며 중력장과 질량이라는 것도 현실이 아니라 정신적 피조물에 불과한 것임을 밝혀주고 있다.

결국 상대성 이론은 시 공 연속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고 상대적이며 관찰자에 의해 시 공간이 좌우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天下皆知美之爲美, 斯惡已; 皆知善之爲善, 斯不善已, 故有無相生, 難易相成, 長短相形, 高下相順, 音相和, 前後相隨

노자에 있어 도는 형이상적 실재로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다. 그러나 형이하의 모든 가치나 현상은 상대적이고 변동하게 마련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점이 구분된다는 것은 시간을 시간적으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양인들은 공간 자체도 시간적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공간이라는 외적 형태의 절대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이런 공간 개념은 동양 건축양식의 공간처리에서 특수한 관계적 양상으로 나타난다.²⁾

또한 노자는 자연속의 모든 변화를 음 양 양극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빚어낸 것으로 보며 모든 대립자의 잠재적 통일(implicit unity of all opposites)로 이해한다.

결론적으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노자의 도사상에서의 주관적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절대적 진리관의 세계를 상대적 진리관의 세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기틀을 만들었던 것이다.

2-2-2. 불확정성 원리와 도사상

양자 물리학에서 독일의 물리학자 하이젠 베르크는 입자를 관찰할 때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결코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으므로 모든 변화는 인과율에 의해서가 아니라 확률에 의해서만 예측될 수 있고 어떤 시험의 결과가 예측일 뿐이지 단정지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과학적 관찰이 순수한 객관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도가에서는 궁극적인 實在가 推論, 즉 드러낼 수 있는 지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道可道, 非常道: 名可名, 非常名³⁾

또한 생명의 진실된 모습은 서로 교환하고 유동하는 경험이라고 설명하며 어느 것이라 할지라도 영속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완벽하게 알 수도 없는 것이라 서술한다.

2-2-3. 상보성 원리와 도사상

2)김용옥,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통나무, 1991, p.108

3)노자, 道德經, 제1장, 홍신문화사, 1997, p.32

궁극적인 실재는 우리의 언어나 개념의 근원이 되는 감각이나 지성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써 적절하게 기술될 수 없다. 노자 사상은 직관 위에 기초하고 물리학은 과학적 실험을 통한 자연 현상의 관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스웨덴의 물리학자 닐스 보어는 관찰자의 상황에 따라서 이중성의 한면이 나타나며 따라서 관찰자의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성질이 나타나 날 수 있다고 보았다. 결국 이러한 특성을 상보성(Complementarity) 원리로서 표현함으로써 입자성과 파동성에 대한 추상적 개념화를 반박하였다.

이러한 상보성의 원리에 대해 도사상에서는 모든 사물들의 個別性을 인정하는 동시에 모든 상이점과 대비점들이 일체를 포용하는 통일체 속에 존재하는 상대적인 것으로 인식했다.

노자의 이러한 直感的 理論은 陰과 陽이란 원형적인 양극으로써 이 대립자의 상보성을 표상했으며 또 모든 자연현상과 모든 인간생활의 본질을 그것들의 역동적 상호작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음과 양의 배후에 놓여 있는 통일체를 道라고 보고 그것을 음양의 상호작용을 시키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았다.⁴⁾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萬物負陰而抱陽, 沖氣以爲和⁵⁾

2-2-4. 카오스와 도사상

20C에 들어와서 양자역학은 자연의 근본적 성질로서의 불확실성, 확률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자연을 규정함으로써 決定論界⁶⁾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은 카오스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비선형계는 어떤 형태로든지 피드백(Feed-Back)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외부와의 상호작용에 있어 두 가지 반대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비록 처음엔 작은 오차라도 시간에 따라 증폭시켜 매우 큰 변화를 일으키는 특성이 있다는 것과 반대로 외부 자극에 대해 변화에 쉽게 적응해서 그것을 감소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비선형성이 만들어 내는 복잡함과 기묘함 그리고 그 속에 감춰진 정교한 질서를 카오스라고 한다.

그러므로 카오스는 혼돈 속의 질서라 말할 수 있으며 단순한 무질서가 아니며 외면적으로는 불규칙적이고 매우 무질서하게 보일지라도 정교한 기하학적 구조를 내부에 감추고 있다.

노자의 도사상에서는 “인간이 무어라고 표상하거나 또는 감각으로 인지할 수 없는 견잡을 수 없는 실재다. 없는 것이 아니고 있다. 있을 뿐만 아니라 견잡을 수 없는 그 무엇인가에서 우주 천지 만물이 끝없이 생성육화 된다. 그래서 도라는 본체는 알 수 없으나 그 결과나 조화를 가지고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것, 그러나 혼돈한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道沖, 而用之或不益⁷⁾
潤兮, 似萬物之宗 :

4) F. Capra, Tao of physics, p.131

5) 노자, 道德經, 제42장, 홍신문화사, 1997, p.158

서구의 대립적 이원론의 경우와 같이 모든 대립적인 것이 양극적인 것이라는 개념의 동일한 현상의 다른 면에 불과하다는 생각은 노자 사상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리 중 하나이다

6) 결정론계라는 것은 확률론계와 반대되는 의미로서 하나이 초기사건이 흐른 뒤 하나의 결과로 귀추되는 계를 말한다.

7) 노자, 道德經, 제4장, 홍신문화사, 1997, p.39

일본의 후쿠나가 교수는 ‘노자 철학은 로고스(logos)를 추구하는 철학이 아니다. 그것은 로고스를 초월한 것, 카오스를 문제 삼는 철학이다.’라고 하였다.

挫其銳, 解其光, 同其塵 :

湛兮, 似或存

2-2-5. 뉴패러다임과 도사상

토마스 쿤(Thomas Kuhn)은 과학자 집단의 모든 행위의 배후와 정상과학 연구 분야의 법칙, 프로세스, 전제에는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일련의 사고방식으로서 패러다임(paradigm)이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오늘에 있어 우리는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현상이 상호 의존하는 전체적으로 연결된 세계에서 살고 있고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패러다임(New paradigm)을 요구하고 있다.

이 뉴패러다임의 기저에는 시스템적 견해가 깔려 있는데 이는 “모든 자연적 시스템은 그 부분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으로부터 그 독특한 구조가 생기는 전체인 것으로 시스템의 활동은 그 많은 구성 요소간에 동시적이며 서로 의존하는 상호작용인 거래(transaction)라고 단정짓고 있으며 또한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역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통해 변형되고 통합되고 있다.”는 견해이다.

뉴패러다임과 노자의 도사상에 있어서 살아있는 유기체의 부분들은 전체와 부단히 정보교환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고 전체의 필요에 따라 작용하면서 스스로의 조직을 유지하고 발전하는 창조적 조직이다.

〈표 1〉서양의 근·현대 사상과 도사상의 비교 분석

근·현대 서양 사상	도사상
기계적 체계 → 유기적 체계	유기적 체계
보이는 체계 → 보이지 않는 체계	보이지 않는 체계
실체의 체계 → 관계의 체계	관계의 실재
분석적 → 논리적	직관적 논리체계
절대적 → 상대적	상대적 사유체계
결정론적 인과물 → 확률론적 불확실성	불확실성
부분들의 연결 → 부분들의 관계, 과정, 통합	부분들의 관계, 과정, 통합
부분적 → 전일적(全-的)	전일적
주·객체 분리 → 주·객체 합일	주·객체 합일
대립적 이원론 → 상보적 이원론	일원론
구조적 → 탈구조적	탈구조적

3. 도사상에서의 공간의 개념

서양의 고대 그리스인은 공간을 유한한 기하학적 차원의 세계로 보고 공간에 자연과학으로서 기하학을 도입한 이래, 유클리드 기하학을 기초로 공간의 이론을 2차원, 3차원으로 전개시켜 나갔다. 수학자 데카르트는 직교좌표를 이용하여 수로써 물리적 표현을 가능케 했고 도형의 요소(점, 선)는 절대적 시간 속에서의 크기와 위치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철학적으로 칸트는 공간이란 외부적 경험으로서 사물의 보편적 개념이나 감각적 인지에 의한 것이 아닌, 단지 사고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선형적으로 부여된 개념으로 보았다. 이는 자연과학에서의 뉴턴의 絕對的空間의 개념과 일치한다.

19C까지 유클리드 기하학은 물리적 공간을 충실히 표현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러나 이후 로바체프스키 공간 등의 비유클리드 기하

학의 성립으로 공간의 개념이 광범위 해졌으며, 아인슈타인의 相對性理論은 공간의 개념을 확대시켜 3차원 공간에서의 물체의 존재 개념을 4차원적인 시공 속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으로 대체되게 되었다. 따라서 공간은 경험의 소산으로 인식되어 졌으며 공존하는 사물 사이에 형성된 관계로서 정의 내려졌다.

노자사상으로부터 디자인 적용을 위한 기본개념을 찾기 위해 중요 개념인 道, 自然法則(反轉), 人間行爲(無爲) 등에 따른 空間과 人間의 관계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동양에서의 生의 개념은 서양적 創造의 개념이 아니라 단지 變形過程(process of transformation)이다.⁸⁾ 이것은 발전 진보로서의 변화를 말하며 공간에서의 변화도 진보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발전적 진보과정은 부분에 대한 세밀한 관찰 뿐만 아니라 전체에 대한 통찰이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가능하다.⁹⁾ 노자의 상대성 개념은 유기적인 의미가 있다. 자연은 남는 것을 덜어서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이 때 생성되는 만물은 서양의 창조물 산물이 아니다. 양(Positive)을 아는 방법은 음(Negative)을 내포하는 것이다.¹⁰⁾ 자연법칙은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는 것, 음과 양의 조화, 역동적 평형 및 균형인 것이다.

無爲而無不爲(하지 않으나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 道에서의 無爲란 비교적 적은 활동이며 진행중인 우주 과정과 조화를 이루지 않은 행위를 중지하는 것이다.¹¹⁾ “나타나기 전에 대책을 세우고 어지럽게 되기 전에 미리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함으로써 無爲는 결코 不爲가 아님을 밝히고 있다. 노자는 空의 쓰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¹²⁾

三十輻(바퀴살)은 그(바퀴구멍)을 한가지로 하니, 그 無를 닮아여 수레의 쓰임이 있고, 진흙을 이기어 그릇을 만드니, 그 無를 닮아여 그릇의 쓰임이 있고, 戶爽(문과 창문)를 파서 방을 만드니, 그 無를 닮아여 방의 쓰임이 있다.

그러므로 有가 利가 되는 까닭은 無가 用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공간 미학의 최초 예를 보여주는 노자의 공간개념이며 有(存在)와 無(非存在)라는 대립개념의 통합은 오늘날의 現代美學에서도 중요한 구조이다.¹³⁾

건축의 대상은 인간이며 건축에서의 공간은 생활공간이다. 생명이 있어야 비로소 생활이 있는 것이다. 공간이 없다면 생명은 존재할 수 없고 시간이 없으면 생명은 연속될 수 없다. 공간과 시간 두 요소 중 한가지라도 결핍되면 생활은 불가능한 것이다.¹⁴⁾ 따라서 생활은 4차원이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공간 역시 4차원인 것이다. 시간을 공간구성의 주요소로 생각할 때 건축은 인간의 삶 및 경험을 공간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¹⁵⁾

생활공간과 인간의 감정 사이의 연관계통은 다음과 같다.

8) 김용옥(1990),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통나무, pp.275~276
 9) 엽수원(1993), 건축과 철학관, 대건사, P.25
 10) 知其雄 守其雌, 제28장, 홍신문화사, 1997, p.113
 11) 兵우란(1983), 중국사상사, 일신사, p.102
 12) 노자, 道德經, 제11장(無用의 章), 홍신문화사, 1997, p.55
 13) Cornelis Van de Van(1997), 건축공간론, 기문당, p.17
 14) 엽수원(1993), 건축과 철학관, 대건사, pp.72~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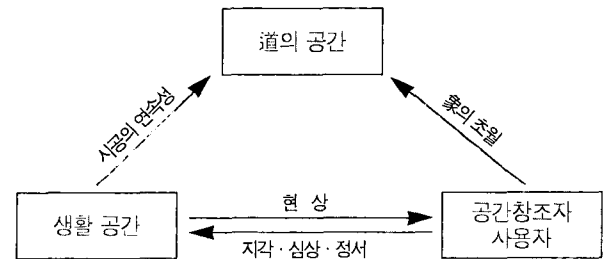
現象(實境) → 知覺 → 心象 → 情緒¹⁶⁾

현상(appearance)은 공간적 상황 및 그것이 지니고 있는 특질이다. 지각(perception)은 인간이 감각기관을 통해 살펴 아는 것이다. 심상(image)은 실제의 현상이 사람의 감정을 통해 그 자신의 마음 속에 생기는 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정서(emotion)는 심상으로부터 일어나는 감정으로 자아의 마음, 심리에 속하는 것이다. 공간 형태에서 심상, 정서를 거치면서 이미 상을 떠나 형성되어지는 도의 공간은 5차원적인 것이다.

공간의 생성은 意境으로부터 實境에 이르고 다시 實境(건축환경)으로부터 心象과 情緒가 생겨나는데 공간창조자의 創作美學으로부터 사용자의 재창조, 수용미학에 이르는 것이다

도에서 바라보는 공간의 개념은 무와 유 의 상호조화적인 개념이고 시공의 연속성에서 이루어진 공간이다. 생명체가 태동(生)하고 성장(長)하며 발전(收)하고 소멸(藏)하는 과정은 무에서 유가 생성되고 다시 유가 무의 근원으로 복귀하는 도의 반복과 순환을 의미한다. 따라서 음·양을 포함하고 있는 씨앗의 단계인 장의 단계로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장생장수의 흐름은 다음 장에서 각 공간배치의 연계성과 개별성을 설명하는데 이용될 것이다.

〈표 2〉 공간창조자 및 사용자와 생활공간, 도의 공간 관계



이상을 정리하면,

첫째, 도에서의 공간은 살아 있는 것이며 무한한 가능성과 창의적 유용성을 갖는 환경 디자인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둘째, 자연법칙인 성장과 변화에 따른 창조가 서양의 창조적 개념이 아닌 변형과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완전함의 추구는 음과 양의 조화를 통해 이루어지며 남는 것을 덜어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작업이다. 무위는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기초이다.

셋째, 공간과 형태는 하나의 實體이며 바람직한 공간은 공간창조자의 마음속에서 象(심상, 창조)으로부터 실제 공간을 체험하는 사용자의 심상(재창조), 정서로 이루어지게끔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4. 전통가옥에 있어 도사상의 도입을 통한 공간 연구

4-1. 도사상에서 본 분석의 틀

앞에서 논술한 것처럼 이 연구의 취지가 전통공간에서의 도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고유의 전통성과 한국성을 부각시키는데 있다면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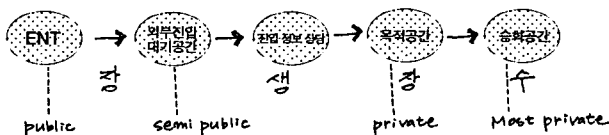
15) Amos Ih Tiao Chang(1986), 건축공간과 노자사상, 기문당, p.14
 16) 엽수원(1993), 건축과 철학관, 대건사, pp.7~8

거공간 유구의 직접적인 자료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있고 한국적 특성으로 부각되는 많은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 조선시대의 주거공간을 설정하는 것이 이로운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비 계급의 가람주거공간이 있는데 가람이나 서민주거공간, 중류 주거공간은 신분, 경제상의 이유로 제대로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상류 계층의 주거공간중 전통사상의 한 줄기인 도의 개념을 본 연구자의 의도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 묘동의 삼가현¹⁷⁾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모든 사물은 짝을 띄워 자라고(生) 무성해지며(長) 열매를 맺고(收) 씨가 땅에 떨어져 묻힌다.(藏)¹⁸⁾ 이러한 자연적 이치는 음양설과 풍수·도참설에 의한 도사상에서도 설명 되어질 수 있다. 음양이란 -와 +의 두 개의 상반된 성질, 즉 건(建)과 순(順), 강(剛)과 유(柔), 기(奇)와 우(藕), 대(大)와 소(小), 장(長)과 단(短), 양(樣)과 유(類)의 대립이며 이들이 상호의존의 관계로 전개되어 나간다. 여기서 양(陽)을 표하여 “-”이라하고 음(陰)을 표하여 “+”라하며 음·양이 다시 하나의 음양을 낳아 이괘(二卦)를 이룬다. 풍수지리설의 본질은 토지는 만물을 생성하는 생명력이 있는 바 이것이 토지가 갖고 있는 일종의 기(氣)라는 것인데 이 기는 토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양의 기는 우주만물을 생성하는 원리로서 천지간에 편재해 있다. 즉 풍수지리설은 소박한 지모적 신앙(地母의 信仰)과 음양오행설이 결부된 것이다. 조선시대의 주거공간이 적극적공간(positive space)과 소극적 인공간(negative space)의 교차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음양의 원리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즉 방 하나하나는 조그만 양(陽)적 공간이고 이를 음(陰)적 공간이 둘러싸고 있다. 다시 양(陽)들이 모여 보다 큰 양이 된 채(棟)를 음적공간이 둘러싸고 이를 다시 담장, 행랑으로 둘러싸므로 보다 큰 음과 양으로 확대되어 결국 음양의 조화를 이루게 된다. 노자 사상적 관점에 의한 디자인 과정은 주관적, 직관적 과정과 객관적, 논리적과정, 프로그래밍 단계와 디자인 단계가 서로 교류하면서 영향을 미친다. 장생장수에 의한 디자인 과정을 연구자가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장생장수에 의한 디자인 과정

단계	형태 및 의미	내용	특징
장	씨앗, 원형 음·양포함	• 노자사상에 의한 공간특성 • 주관적 고유특성 • 객관적 보편특성	• 혼돈속의 질서 찾기 • 공간의 개념화
생	씨, 발생, 역동성	• 시간적 정보	• 공간의 발생
장	줄기, 잎, 성장, 변환, 원심적발산	• 음양공간의 반복 교차 • 연속성	• 공간의 조직화
수	열매, 성숙, 구심적수렴	• 무한성 • 공간과 인간의 합일	• 무의 용 의미부여 • 공간의 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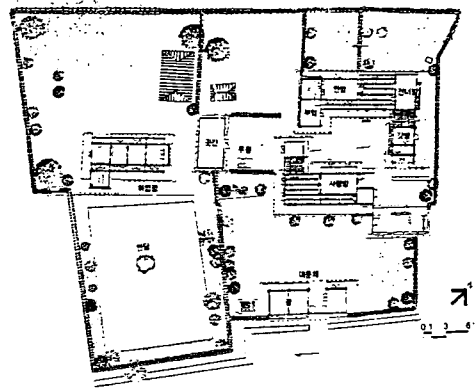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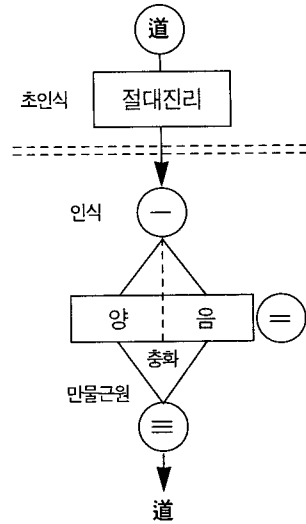
〈표 4〉 디자인 프로세스(공간 분석의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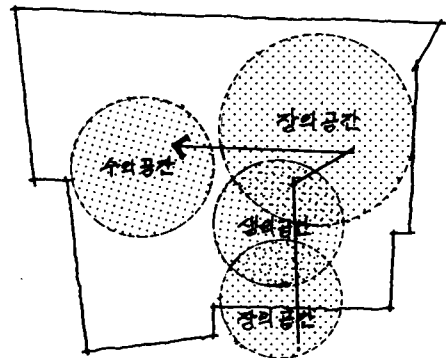
17) 조선중기(1747), 현 주인인 박황씨의 5대조 박광석씨에 의해 건축된 경북 묘동의 전통 가옥

18) 서양자(1994), 뉴패러다임-도사상의 상관성 고찰을 통한 실내 환경 디자인 방법에 대한 연구. p.79

〈표 5〉 도의 생성 과정



〈그림 1〉 삼가현 배치



〈그림 2〉 공간 이동 형태

4-2. 장생장수에 의한 공간 분석

1) 藏 - 외부진입. 대기공간

무한한 조화 속에서 음양의 합일성을 도사상의 가장 기본적 원리이며 모든 사물들의 개별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모든 상이점과 대비점들이 일체를 포용하는 통일체 속에 있는 상대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장의 과정을 대립자의 통일체이며 상보적인 두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씨앗의 특성을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한 공간으로 공간이 발생하기 전의 혼돈과 역동적 에너지를 잠재적으로 의미하는 공간이다. 대문채를 통해 안으로 들어서면 문이 열림과 동시에 개벽의 상징성을 기대할 수 있고 기다림과 대기공간으로서 정점의 공간이다. 대

문체의 밖이 이에 해당된다.

2) 生 - 진입 정보 상담 공간

씩의 속성을 가진 것으로 장의 단계가 밖으로 표출되기 시작한다. 공간의 발생 단계로 공간의 원형 단계에 포함되어 있던 음 양이 분화 되고 단순화되어 표현된다. 생명력이 있고 역동적 공간이며 본격적인 내부공간이 시작되는 곳으로 내부에 대한 기본정보 및 상담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점의 상태에서 선이 생기는 단계이므로 선을 강조하는 흐름들이 시작되면서 갖가지 형태와접촉이 시작된다. 대문체로 들어서면 드러나는 마당과 사랑방의 기본형태, 나무 및 정경 등이 이에 해당된다.

3) 長 - 목적공간

공간이 조직화되면서 음 양 공간이 발달과 반복 교차됨으로써 시각의 연속성과 끊이지 않는 흐름을 만들어 공간의 연속성을 만든다. 잎의 속성이 있는 단계로서 선이 넓고 면이 형성되면서 공간의 다양성과 성장의 화려함을 볼 수 있다. 공간의 분화에 따른 축의 성장 정립이 이루어지며 내외부공간이 기능에 따라 분화된다.

이곳에서의 공간 배치는 사랑채는 좀 더 큰 공간을, 별당채는 아주 큰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데 비하여 각 채의 면적은 그 반대로 구성되어 있다. 각 채를 둘러싸고 있는 담돌고 안채는 후면부까지 각각 공간들을 구획하고 있는데 비해 사랑채는 이 채의 전체적인 경계부만을 구획하고 별당채는 거의 트인 공간 구성을 하고 있다.

4) 收 - 목적공간+승화공간

장의 공간을 거쳐 정점에 이르는 단계로서 “無”, “處”, “靜”, “樸” 등의 의미가 부여된다. 열매의 속성으로 조형 원리로서 새로운 씨앗으로 수렴된다. 이 새로운 씨앗은 공간 창출의 원형이 된다. 관측점의 이동으로 감정의 확대가 가능하고 공간은 시간성에 의해 더욱 무한해진다.

공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은 공간의 인격화를 가능케 하며 공간이란 비실체와 이를 인식하는 인간 사이에서 완전한 합일을 이루어 공간의 본질적 상태인 원형상태로 다시 되돌아 갈 수 있으며 무한한 기능성의 재창출을 이루어 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건축에서는 물을 중요한 조원의 요소로 여기고 있으며 이는 자연의 순리가 조원의 기본질서로 존중된 기본 원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하엽정과 연당이 있는 정원은 조선시대 사대부 집안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道家式 정원”

5. 결론

동양사상은 인생 및 자연, 우주에 대한 근원적 통찰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양사상과의 선택적 상황에서 불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세계 문명 및 사상이 主觀的, 相對的 가치체계로 전환되면서 동양사상에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本 研究는 인간과 환경의 관계성을 老子思想과 現代物理學의 相觀性研究를 통해 문제 인식에서 문제 해결 방안의 제시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접근과 방법을 통해 환경 디자인의 전체적인 시각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는 한 전통가옥을 설정하여 장 생 장 수의 과정을 도입함으로써 이미 전통적 가치관과 道思想이 서양사상에서의 空間처럼 해석되어질 수 있음을 알았다.

첫째, 노자사상에 대한 현대적 재인식을 위한 일관성 있는 개념 구조와 사상적 배경으로써 현대서양 사상과의 상관성 연구를 통해 상대적, 유기적, 전체적 공간 개념이 이미 노자 사상적 가치관에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현대의 사상이 탈 물질화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동양사상으로의 귀결점을 찾고 있는 것에는 인간과 환경이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정신의 환경적 반영이 모색되어야 하는 필연성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전통가옥에 대해 도사상의 흔적을 Design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은 전통이라는 가치 하에 새로운 환경 미학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조심스레 제시하게 된다.

참고 문헌

1. 노자, 道德經, 홍신문화사
2. 김용옥(1991), 東洋學 어떻게 할 것인가, 통나무
3. F.Capra, Tao of physics
4. 엽수원(1993), 건축과 철학관, 대건사
5. 빙우란(1983), 중국 사상사, 일신사
6. Cornelis Van de Van(1977), 건축공간론, 기문당
7. Amos Ih Tiao Chang(1986), 건축공간과 노자 사상, 기문당
8. 서양자(1994) 뉴 패러다임-도사상의 상관성 고찰을 통한 실내 환경 디자인 방법에 관한 연구, 이화 여자 대 학교 실내 디자인 석사 학위 월간 인테리어 (1990. 9)
9. 석진옥(1990), Neutral space 공간에 대한 연구, 홍대 환경 대학원
10. 장기근(1994), 노자 장자, 삼성 출판사
11. 임승빈(1993), 환경심리-행태론, 보성 문화사
12. 안명배(1978), 한국 건축의 외부 공간, 보진재
13. Barnes, Barry(1989), 토마스 쿤과 사회과학, 정음사
14. Prigogine Ilya(1989), 혼돈으로 부터의 질서, 정음사
15. 이강훈(1987), 노장사상과 건축공간의 생성, 충북대학교 건설 연구소 논문집 제6권
16. 주남철(1996),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접수:1997. 4. 28)